조선시대 대가람의 뒷간은?

'대가람의 뒷간(厠)' 展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7월 1일까지

2005년 발굴된 회암사지 뒷간
건축물 일부 가상 재현
대가람의 뒷간에 대한 체험
거름지게 · 거름통 등 128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선 시대 사찰 화장실의 모습과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7월 1일(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대가람의 뒷간(厠)' 展을 개최한다.

전시는 2005년 발굴된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의 화장실 터를 주제로 실제 구조를 추정해볼 수 있는 건축물 일부를 가상 재현함으로써 대가람의 뒷간에 대한 체험을 해보기 위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뒷간 이용자 및 백자 등의 식기유물, 전통뒷간문화 관련 거름지게와 거름통 · 오줌장군 · 매우틀과 같은 유물 및 사진, 영상 모형 등 128점이 전시된다. 또한 발굴과정과 분석내용도 소개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진행하는 'K-Museums 지역순회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전시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과 2016년에 공동으로 기획한 '큰 고을, 양주'에 이은 두 번째 공동 기획전시다.

2005년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에서는 거대한 석실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석실은 뒷간 터의 지하구조로, 현재까지 국내 사찰 터에서 발굴된 것 중 최대 규모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 대가람 회암사의 큰 규모를 다시금 입증해주는 발견이었으며, 당시 사찰의 생활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 · 근심을 내려놓는 곳)'라고 부르고 있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석실구조 위에 자리하던 회암사지 뒷간의 이용자와 사용방법 및 구조를 전시를 통해 당시를 추정해보고, 사찰 뒷간의 간접 경험을 통해 '해우'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뒷간을 발견하다'에서는 회암사지 뒷간 터의 발굴과정과 기생충 연구, 당시 식생활문화를 소개한다. 2005년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거대한 석실구조의 실제 크기를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생충의 발견으로 드러난 인분의 흔적과 관련 음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당시 회암사에서 사용했던 식기류의 전시를 통해 식생활문화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회암사지 화장실 터 지하석실 입구


거름지게-거름이나 분뇨를 실어나른 지게


매우틀-임금의 용변을 담는 틀


장군-물 · 술 · 소변 등을 담는 그릇

2부 '뒷간을 이용하다'에서는 회암사지 뒷간을 이용했을 주요 이용자들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고, 사찰 뒷간이 지니는 전통의 친환경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실록 속에는 출가자를 포함하여 회암사를 다녀간 다양한 외부인들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존재는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도자기, 장신구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 뒷간과 마찬가지로 사찰 뒷간 역시 거름을 생산하여 농경에 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암사지 출토 석실구조와 '장군', '동이' 등의 거름 관련 유물 및 농기구 유물들은 왕실로부터 받은 전지를 경작함에 있어 친환경 거름을 사용했다는 주요한 단서가 되고 있음을 소개한다.

3부 '뒷간을 상상하다'에서는 회암사지 뒷간의 구조를 추정하여 가상으로 재현을 시도했다. 길이 12.8m의 대규모 석실 위에 자리했던 뒷간은 최대 24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공중화장실이었다. 전시장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유구의 형태와 동시대의 건축양식을 토대로 뒷간의 입구부 일부를 실제 크기에 가깝게 재현하여 관람객이 그 규모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뒷간 연출 구조물 안에서는 현존하는 전통사찰의 대표적인 뒷간의 VR영상을 통해 내부 구조를 살펴볼 수 있고, 회암사지 뒷간의 다양한 구조를 3D영상으로 살펴본다. 또한 최병환 감독의 〈해우소〉(2006)를 통해 사찰 뒷간에서 벌어지는 익살스러운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해우소'라는 명칭으로 유명할 만큼 마음이 편안한 뒷간 공간에서 '쉼' 영상의 감상을 통해 '해우'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도록 했다.

이천 마옥산 용학사 창건 30주년 행사 '풍성'

'이천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음악회' 4월 28일까지



'이천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음악회' 포스터

경기도 이천 마옥산에 자리한 용학사(주지 혜봉)가 창건 30주년을 기념해 '이천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음악회'를 4월 28일(토) 경내에서 개최한다.

용학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시민 모두가 어우러져 봄내음을 함께 만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본 공연에 앞서 오후 3시부터 새로 조성한 삼성각의 낙성식 및 점안식을 진행한다. 지난 해 11월 착공에 들어간 삼성각 불사는 이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불자들이 동참해 원만히 회향한 불사다. 낙성식 후에는 진도북춤과 용학사 합창단의 공연이 어우러진 식전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본 공연은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무대로, 다양한 연령대의 가수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으로 꾸며진다. 최근 신곡 '잘가라'를 발표하고 각종 매체의 음악,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 홍진영과 '뿐이고', '나무꾼' 등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수 박구윤이 출연한다. 또한 '타요타요'로 유명한 트로트 걸그룹 오로라, '사랑해 사랑해', '갑을인생'의 구나운, 국악인 이신예 그리고 분리수거밴드가 함께 무대에 선다. 특별 게스트로 가수 박일남이 출연하며 사회는 전혜원 아나운서가 맡는다. 음악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되며, 음악회 후에는 연등 점등식과 탑돌이를 진행한다.

주지 혜봉 스님은 "예로부터 재해와 재난이 없는 평화로운 고장 이천에 자리잡은 용학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창건 30주년을 주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별빛과 연등빛 속에서 음악으로 다 같이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웃으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공연의 취지와 소회를 밝혔다. 용학사는 이날 음악회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이천 시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셔틀버스는 송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용학사까지 수시로 운행한다. 오후 5시부터는 간단한 식사와 음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용학사는 이천의 명산인 마옥산에 자리했던 선덕사라는 이름의 폐사지가 30여 년 전, 지금의 주지 스님인 혜봉 스님의 인연을 만나 새로운 가람으로 문을 열었다. 그 불연에는 이야기가 전한다. 혜봉 스님이 산신각에서 기도 정진 중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날개옷을 입은 여인들이 나타나 대웅전의 오른쪽 기둥 쪽으로 스님을 이끌었다. 그 때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나 하늘로 승천했다. 그 이후로 절은 용학사로 불리었다. 공연문의 / 031-632-4885 박재완 기자

스님 선필과 수녀의 공예 콜라보

스님의 선필이 수녀의 금속 공예를 만나 새로운 회통의 예술로 탄생했다.

국제선도문화연구원은 4월 22일까지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회통'이라는 이름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최마리엘리사벳 수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전, 금속공예 선필 전을 개최했다.

전시에는 '수처작주', '삼처전심', '처염상정' 등 설정 스님의 선필을 최마리엘리사벳 수녀가 금속공예로 재탄생시킨 작품 18점이 전시됐다.

'회통'이라는 제목과 함께, 스님과 수녀의 작품이 만났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전시는 모든 것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님과 수녀라는 종교적 이름으로 만나 종교의 이름을 넘어서는 모습이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전시다.

그동안 금속공예를 통해 대중과 함께 하고 싶었던 최마리엘리사벳 수녀는 그 인연을 찾던 중 설정 스님의 선필을 만났다. 다른 종교의 이름이지만 마음을 닦아 쓴 글 속에는 종교를 떠나 함께 읽고 함께 할 '배움'이 있었다. 다른 종교에 몸 담고 있지만 수행이라는 같은 길을 가는 수행자로서 수녀는 그 마음을 자신의 금속공예에 담아 회통을 이루고자 했다. 지난 14일 개막식에는 설정 스님과 최마리엘리사벳 수녀를 비롯해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맹세영 홍성 성당 주임신부 등이 참석했다. 설정 스님은 "우리 스스로가 겸허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모든 생명과 함께 공유하고 회통하는 것이 종교인이 가야 할 길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최마리엘리사벳 수녀는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작품활동에 도움을 주신 설정 스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답했다. 박재완 기자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 · 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